

광주·전남 지역 은행 빚 못 갚는 소상공인 크게 늘었다

국회 박영순 의원, 신용보증재단 제출 자료 분석
 대위변제 전남 764→1406건, 광주 1166→1608건
 신보 대위변제율 전남 1%→3%, 광주 1.3%→3%

광주·전남지역에서 은행대출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영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올해 7월까지 212억원, 변제 건수

는 160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변제액이 총 160억원, 변제건수가 116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132%·137.9% 늘어났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아 주는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0%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변제액 211억원, 변제건수

1406건으로 작년(128억원, 764건)과 비교하면 각각 184%·164% 늘었다. 대위변제율은 1.0%에서 3.0%로 3배로 올랐다. 다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는 대위변제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경북(4.6%), 인천(4.3%), 전북(4.2%), 경남(3.9%), 부산(3.7%) 순이었다. 광주와 충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

역은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율의 3배 이상 뛰었다. 박영순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는데, 이제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부채 대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변용일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KIA 홈경기당 일회용품 5100개 버려져”

3주간 7경기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KIA 타이거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 경기당 일회용품 5100여 개가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열린 기

아챔피언스필드에서 7차례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자원순환사회연대·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 등 18명은 경기장 내 5곳에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사용된 일회용품 품목은 일회용 컵 2만 1858개, 비닐봉지 8618개, 빨대 5816

개, 응원봉 75개 순으로 많았다. 한 경기 마다 일회용품 5100여 개가 버려지는 셈이다. 버려진 일회용품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7만 9582t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품 다량 사용 배경으로 여름철 음료 섭취 증가와 음료 판매장의 플라스틱 빨대 취급 등을 꼽았다. **오유나기자**



2023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가
을
꽃
축
제

10. 7. - 10. 15.
장성 황룡강 일원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공사 사장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주도해야”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것을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20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자금력과 기술력, 풍부한 해외 파인낸싱 경험을 갖춘 한전이 적극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10개 부처 29개 관련 법률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신재생의 질서 있는 보급에 기여해야 한다”며 “대형터빈 전용 설치선, 배후항만, 공동접속설비 등 단지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발전원가는 대폭 낮아지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그만큼 흡수될 것”이라며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하더라도 한전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팀코리아(Team Korea)’로서 원전 수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코리아로서 제2 원전 수출 총력 기업에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취약층 지원

그는 “제2 원전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한전은 이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로 원전의 설계·시공·유지보수에 이르는 전방위 역량을 세계에 입증했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 수출 강국의 위상 강화와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한전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후방 에너지 혁신 기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며 “한전이 에너지 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탄소 전력 생산에 필요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혼소 기술, 에너지 소비를 혁신시키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효율적인 미래 전력망을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등 핵심 에너지 신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



김동철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이 20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전력공사 1층 한빛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연구개발(R&D)에서 사업개발·기획, 시공·건설, 운영관리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전은 에너지 신기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은 줄이고 새로운 수익은 창출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의 재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시사했다.

김 사장은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무려 600%에 육박한다”며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욱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충분한 지원 대책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